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영향

이아름 연구원

■ 2015년 10월 5일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¹⁾이 타결됨.

- 2005년 TPP 협상을 개시한 이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 타결을 선언함.
- 12개 회원국 중 6개 이상의 나라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 협정을 비준하게 되면 발효되며, 의회 비준이 거부되는 나라는 제외되고 비준을 마친 나라부터 우선 적용됨.²⁾
- TPP가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출범과 동시에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경제권이 형성됨.

■ 12개 TPP 참여국들이 공식 서명한 협정문³⁾은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⁴⁾, 정부조달, 노동자 보호, 환경보호 등 30개 장(chapter)으로 구성됨.

-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공산품, 농산물 등 1만 8,000개 상품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 및 인하될 전망이다.
- 또한,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및 환경 보호, 금융 및 의료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음.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메가 FTA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이 가입 관심을 표명함.
 2)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됨.
 3) TPP 세부내용은 협정문 비공개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NGO단체인 국제지식생태계(KEI), 미국 소비자단체인 Public Citizen, Wikileaks 등에 의해 협상 내용이 일부 폭로되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간접적으로 협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4)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10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Section A는 일반규정, Section B는 협력조항, Section C는 상표권, Section D는 지리적 색인, Section E는 특허, Section F는 산업디자인, Section G는 저작권, Section H는 제재조항, Section I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Section J는 각 가입국별 세부사항을 담은 부록임.

■ 그 중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 등 3대 쟁점이 합의됨에 따라 TPP는 미국 제약업, 뉴질랜드 낙농업, 일본 자동차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TPP 3대 주요 이슈로 부각된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8년⁵⁾으로 합의됨.⁶⁾
- 낙농품 시장도 뉴질랜드가 수출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의 쟁점이 되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가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음.
-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함.⁷⁾

■ TPP에서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이 8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⁸⁾ 중심의 중·소형 제약업체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독점현상 발생 및 의료품 가격 상승으로 신흥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generic) 의약품 제약업체는 그동안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완료하여도 특허기간 만료를 기다려야 하였는데, TPP 체결로 특허 보호기간이 12년에서 8년으로 짧아져 제네릭 의약품이 강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신흥국 제약업체는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TPP를 이행하도록 강제되어 요구되는 R&D 투자비용의 실행이 어려워 선진국 중심의 독점현상이 발생하여 신흥국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이 자국에서는 5년인 반면, TPP 참여로 5년보다 3년이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암과 에이즈바이러스(HIV) 환자의 의료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TPP의 발효 시점은 2016년 이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중·일 FTA,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⁹⁾,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¹⁰⁾을 추진 중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¹¹⁾ 타결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5) 페루와 베트남은 부록에 10년을 이행 기간으로 명시됨.

6) 협상 초기 미국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요구하였고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5년을 주장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협정상 보호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하되 신약 승인기간으로 3년을 추가 보호기간으로 설정하여 8년으로 합의됨.

7)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중 80% 이상의 수입 관세가 현재 2.5%에서 TPP 발효 즉시 철폐됨.

8)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일컬으며,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함.

9)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최종목표로, FTAAP는 TPP와 RCEP을 아우르는 거대경제통합체로 평가할 수 있음. 2006년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지역 경제통합추진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시됨.

10) 중국 주도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임.

- 미국의 경우 TPP 서명을 위해서는 합의 후 의회 통지로부터 90일의 기간이 필요하며¹²⁾,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및 2015년 10월 캐나다 총선 등 각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TPP 발효까지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 한편,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높여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FTA 및 인도와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에 참여하는 등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힘쓰고 있음.
 - 제10차 RCEP 협상¹³⁾이 2015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협상은 지체되었으나, 중국은 다른 15개 협상 참여 국가들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USTR, Wikileaks 등)

-
-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 및 ASEAN과 FTA를 맺은 6개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함.
 - 12) 미국의 경우 2015년 6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무역협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이내에 의회에 합의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의 목록을 제출해야 함.
 - 13) 이번 RECP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상품·서비스·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STRACAP(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